



“겸손하게 주님께 의탁하는 우리들”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206-362-2278 | 연령회:425-225-6786
 www.standrewkim.us | Email: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홍광철 세례자 요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토마스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요한20,25)하고 부활의 기쁜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토마스는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토마스는 제자들이 보고 싶어 했던 것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헛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라도 보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는 보고 믿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 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요한20,25)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보이고, 들리는데 닫혀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고, 형제요 자매라고 지내왔지만, 동료로서 함께 지내왔지만 그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도 문제요,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



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토마스도 같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잠겨 있는 문을 통과하셔서 그들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20,26) 그리고 토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요한20,27)

한주일 동안 토마스는 아마도 홀로 의심 속에서 움츠리고 있었으며 다른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토마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토마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토마스가 원하는 방식으로 토마스를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의 경우 고집 부리다가도, 일 한번 당해야 그제야 정신을 차립니다. 토마스 사도가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토마스에게 다가가 주십니다. 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자 토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요한20,28)

그렇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내가 믿어야 만이 그분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기에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결코 내 틀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토마스는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어 보아야만이 믿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 보았을 것입니다. 토마스 사도는 다른 사도들이 본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너무도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자신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토마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요한20,29)

미사 안내

주일미사 (토요일 저녁) 오후 7:30
 (주일) 오전 8:00 / 10:00
 오전 11:30 (학생)
 오후 6:00 (청년)
월 오전 10:00
수/목/금/토 오전 10:00
화/수/목/금 오후 7:30

성사 안내

환자 봉성체 매달 첫 목요일 오전
병자성사 구역장을 통해 신청
성체강복 매달 첫 목요일 저녁미사 후
예비신자교육 (목) 오전 10:00 미사 후
 (주일) 오전 8:20

학교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00
YG(고등부) (주일) 오전 10:00
한국학교 (금) 오후 7:00
 (토) 오전 9:30
안드레아 문화대학 (주일) 오후 1:00-4:00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닫아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 가운데 서시며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19) 제자들은 불안과 초조, 절망으로 가득했고,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인사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하신 말씀은 “평화”였습니다.



홀리며(수난과 죽음) 곁을 찢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아이들에게 전해지면서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애들아! 괜찮니?”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통해서 얻은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

평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고통을 통해 성취한 평화이며, 고통과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취해낸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예수님의 희생으로부터 온 평화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하루 종일 시장에서 일한 돈으로 아이들을 위해 맛있는 떡을 사 주시고, 먹는 것만 바라보아도 흐뭇해하시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굶은 아이가 “엄마는 안 먹어?”하면 “엄마는 많이 먹었다.”하시며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주시는 떡으로 배부르게 되고, 어머니의 땀 냄새 나는 무릎에서 기뻐하며, 편히 쉬는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주시는 떡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닮았습니다.

또 이 평화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진(죄)으로 집이 무너져 아이들이 지하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공기가 없어서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었는데(죄의 결과), 그래서 아버지가 무너진 폐허를 걷어내고, 온 몸에 상처가 나는 것을 감수하며 파 내려가 마침내 아이들이 있는 곳 까지 피땀을

고 기뻐하였습니다.(요한20,20) 예수님의 구멍 난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 유령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바로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당신의 능력으로 죽은 체, 아픈 체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함께 죽었지만(꿈, 희망, 삶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도 부활을 맞게 됩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마음은 기쁨이 넘쳐났고, 그동안 자신들이 겪은 모든 고통과 부활을 믿지 못했기에 부활을 믿지도 못했고, 무덤을 지키지도 못했던 죄스러운 마음들이 한 순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 평화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를 간직하기 위해서 나는 두려움을 떨쳐 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전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걸으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되었습니다.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으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되어 예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루카24,29)

나보다 나은 신앙의 스승을 모시려는 마음, 자신들의 무지한 머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과 좀더 함께 있으려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나 또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체성사를 의미하지는 않고, 그냥 평범한 보통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빵을 떼어 주시는 모습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항상 하시던 동작을 보고서 제자들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루카24,31) 마리아 막달레나가 항상 듣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알아 본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빵을 떼었기에 그 모습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눈앞에 앉아 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사라져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에 넘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루카 24,32)

가끔은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결코 뜨거운 열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강론 중에 들려오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구역모임 때 형제자매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역모임 안에서나, 강론 중에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하는 탄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즉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밤길을 걸었습니다. 기쁨에 넘쳐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기쁨을 전해 주었습니다.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루카24,34)고 말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시몬 베드로의 체험을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에서 돌아온 제자들도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빵을 떼실 때에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차례입니다. “나도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이 기쁨을 당신께 전합니다.”나 또한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형제자매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모든 이들 앞에서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갑시다.

사목지표

“겸손하게 주님께 의탁하는 우리들”

전신자 실천사항

- 첫째, 하루 한 번 감사드리기
- 둘째, 행동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먼저 찾기
- 셋째, 내가 먼저 인사하기

공동체 소식

◆ 이번 주 미사 안내

- 환자봉성체 5/4 (목)
봉성체를 원하시는 가정은 사무실에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성체조배-성체현시 5/4 (목)
오전 9시부터 가정성화미사 전까지
- 가정 성화 미사 5/4 (목)
- 성시간 5/4 (목)저녁미사후
- 성모 신심 미사 5/6 (토)

◆ 문화대학 교양강좌

- 4/30, 5/7 1교시 교양: “스마트 폰” 강좌
- 4/30 (주일) 2교시 교양: “명상”
- 6월 한달간 (4번) 1교시 교양강좌로 “수목화”가 있습니다.
- 문화대학에서 장구와 건반 도네이션 받 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선교용 후보

- 선교용 후보(1달에 한번 4면 발행:칼라)가 후보대에 비치되어 있으니, 혹시 외부로 발송하시거나, 주위 분들에게 나눠주시는 등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서북미 여성 꾸르실로 신청 안내

- 서북미 여성 제13차 꾸르실로에 초대받으신 자매님은 빠른 시일내에 참가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초대의 편지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직접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문의
간사 임화식 레오 (206)498-8164
부간사 서현정 베로니카 (206)335-3080

◆ 산악회 일정 안내

- 화요일: 초보 코스 (약 4시간 소요)
10시 출발
- 토요일: 중급 코스 (약 6시간 이상 소요)
8시출발
- 문의: 이 레이몬드 (206.819.7876)

◆ 가톨릭 공원 묘지 안내

- 시애틀 교구에서 운영하는 공원묘지에 서는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하여 신자들이 묘지땅과 납골당을 미리 준비하기를 권장하며 4월 15일(토)부터 Property 에서 10% Discount 혜택을 드립니다.
문의 : 박요안나 (206-434-5670)

◆ ME 첫주말

- 날짜 : 2017년 9월 8일(금) ~ 10일(주일) 2박 3일 여정으로 부부의 아름다운 시간 속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 접수 :박재만 마르띠노/크리스티나 (본당 ME 대표부부)

◆ 2017 청년회 비.배.섬.에 초대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아 본당 청년들의 신앙과 일치를 위해 “비우고, 배우고, 섬기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 일시 : 화요일 저녁 미사 후
- 장소 : 108호
- 첫째주 : 떼제기도모임 (비움)
- 둘째주 : 떼제기도모임 (비움)
- 셋째주 : 청년교리 (배움)
- 넷째주 : 청년 성경공부 (섬김)

매달 마지막주 주일은 청년 미사후 신부님과 만남이 있습니다.

전례상식

“신앙의 스승! 어머니”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챙겨주고, 단식과 금육을 할 수 있도록 챙겨주고, 신앙생활을 격려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기도하기도 힘들뿐더러 단식과 금육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평일미사나 주일미사에 참여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의 평화는 쉽게 깨집니다. 큰 소리가 가정에 울려 퍼지고, 자녀들과 마음을 나눌 수가 없으며, 대문 밖의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어머니는 가정을 잘 이끌고, 가정 밖의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마음을 열며, 웃음이

넘쳐나게 합니다. 가정의 화목과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며, 모든 것을 신앙 안에서 어루만져 주시고, 신앙을 권면해 주십니다. 어머니 품에서 기도하고,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성당에 다니며, 어머니와 함께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어머니는 우리 집안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니다.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권면해주시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바로 하느님 나라에서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가족을 하느님 나라로 이끌어 줍니다. 의롭게 살아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받아, 나 또한 신앙의 스승으로서 내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